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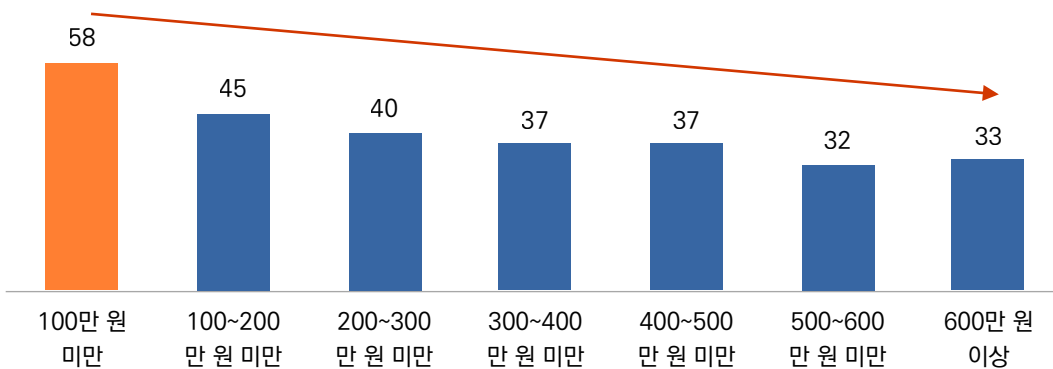


## [소득 수준별 외로움 체감도]

### 월 100만원 미만 가구, 600만원 이상 가구보다 1.8배 더 외롭다!

- 최근 국가데이터처(구 통계청)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, 가구 소득 수준은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외로움 체감도(자주+가끔 느낌)는 58%로, 600만 원 이상 가구(33%)에 비해 2배 가까이(약 1.8배) 높았다.
-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과 외로움 체감도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. 이는 경제적 빈곤이 관계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.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, 정서적 지원 체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.

[그림] 월 평균 가구소득별 외로움 체감도 (13세 이상 인구, '자주+가끔 느낌' 비율\*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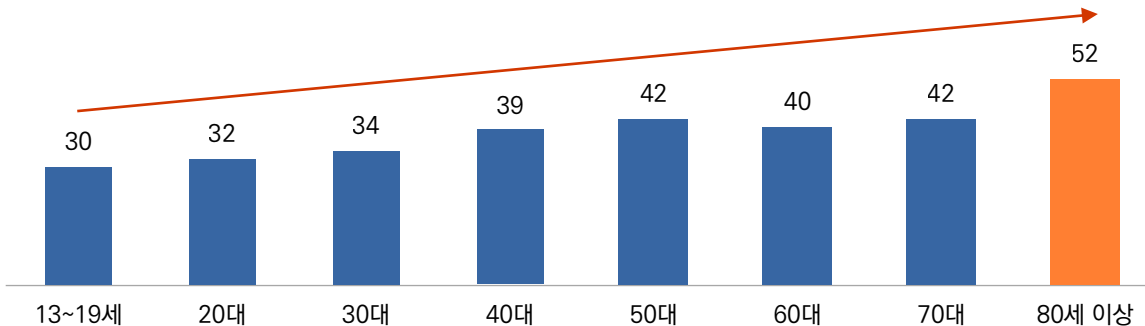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(KOSIS), 2025년 사회조사 결과(외로움), 2025.11. ([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\\_1SSSP050R&conn\\_path=I2](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_1SSSP050R&conn_path=I2))

\*4점 척도

## 초고령층일수록 외로움 체감도 높아져!

- 연령별 외로움 체감도를 살펴보면 '80세 이상'(52%) 초고령층에서 외로움 느낌(자주+가끔)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.
- 반면 4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외로움 체감도가 30%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.

[그림] 연령별 외로움 체감도 (13세 이상 인구, '자주+가끔 느낌' 비율\*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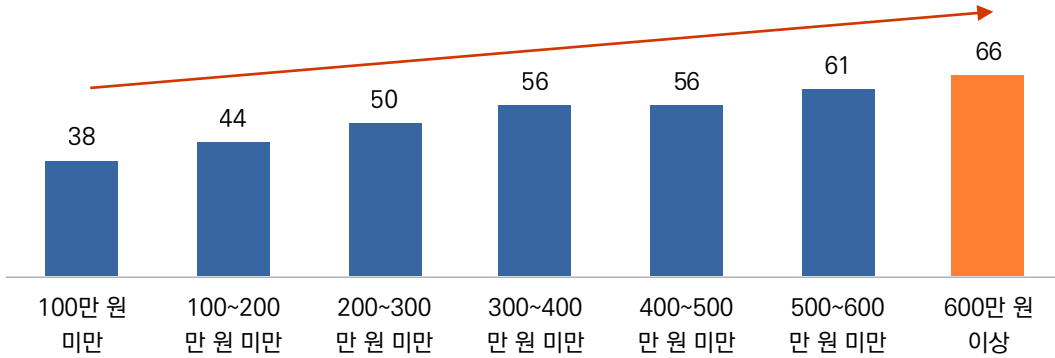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(KOSIS), 2025년 사회조사 결과(외로움), 2025.11. ([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\\_1SSSP050R&conn\\_path=I2](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_1SSSP050R&conn_path=I2))

\*4점 척도

## 소득수준 높을수록 인간관계 만족도도 높다!

- 인간관계 만족도를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결과,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인간관계에 '만족한다' 비율이 38%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, 600만 원 이상 가구의 인간관계 만족도는 66%로 나타나, 100만 원 미만 가구의 1.7배를 웃돌았다.
-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.

[그림] 월 평균 가구소득별 인간관계 만족도 (13세 이상, '매우+약간 만족' 비율\*, %)

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(KOSIS), 2025년 사회조사 결과(외로움), 2025.11. ([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\\_1SSSP050R&conn\\_path=I2](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_1SSSP050R&conn_path=I2))

\*5점 척도